

## 그리스의 언어 현실과 언어 정책

서양 문명의 요람이라는 그리스는 기원전 약 700년경에 서양 문학의 효시이며 불후의 금자탑이라고 하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쓰여진 이래 오늘날까지 한번도 문헌 기록이 끊긴 적이 없는 문학 전통을 자랑한다. 오직 중국만이 이렇게 긴 문학 전통에 필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전통 때문에 현대에 와서 어문 정책에 있어 남다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는 점이 그리스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만물은 유전한다. 또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지난 3000년간 그리스어 역시 변화해 왔다. 그러나 다른 민족보다 유난히 찬란한 고대 문명과 문학 전통을 가졌었고, 또 알렉산더 대왕 이후 민족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외적의 정복으로 고통을 당해왔던 그리스의 지식인들은 이미 기원전 1세기 때부터 그리스의 쇠퇴는 그들 언어의 타락에서 기인된다고 믿어 기원전 5세기의 ‘아틱’ 방언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옛 영광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그리스인들은 거의 병적으로 이 언어 문제에 대해 서로 대립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반목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하는 또 다른 언어 수난사가 시작되었다.

그리스의 언어 문제란 기원전 5세기의 ‘아틱’ 방언을 이상적인 언어로 보고 그 당시의 문학어를 가르치고 사용하여 위대한 그리스 정신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언어 정화주의자’들과 언어란 어차피 변하는 것이므로 민중들의 입에서 쓰여지는 그대로의 구어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민중 언어파’의 대립으로 대표된다. 우선 실악 성경

이 그 당시 가장 널리 알려진 국제어인 그리스어로 쓰여 졌을 때, 그 그리스어는 그 당시의 구어였던 ‘코이베’(공통) 방언이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 선교되기 시작하자 초기 교부들은 자신들의 풍부한 고전 교육을 바탕으로 모든 예식서와 기도서, 신학 이론들을 ‘아틱’ 방언으로 쓰기 시작했다. 한 교부는 설교 중간에 어느 노파로부터 알아들을 수 없다는 불평을 듣고 나머지 설교를 구어체로 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 일반화되지 않은 시대인 비잔틴 제국 시대와 중세에 걸쳐 언어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교육은 오직 고전 문어체로만 되었고, 민중은 글을 읽을 기회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1453년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투키에게 정복당한 후엔 그리스어의 문헌이란 몇몇 수도원과 교회 성직자, 그리고 일부 귀족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다.

1821년 그리스는 드디어 근 400년간의 터키 지배에 대항하여 독립 전쟁을 일으켜 1831년에 그리스 왕국으로 현대 국가를 세우게 되었다. 독립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독립군과 임시 정부의 공용어는 펠로폰네소스 방언을 중심으로 한 민중어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공통 방언은 왕정과 함께 들어선 귀족계급의 정치적 반동의 결과 또 다시 고전 그리스어를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언어 정화주의자’들에 의해 일반 대중의 언어와는 관계가 없는 ‘문어체’가 교육, 행정, 학문, 군사어로 채택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문맹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으며, 일반 대중으로부터 독서를 빼앗는 꼴이 되어 국가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 그 당시 특권층이라 할 지식인들의 보수성의 한 대표적인 예는 1902년 ‘알렉산드로스 팔리스’가 신약 성경을 현대 구어체로 번역한 데 대해 흥분한 대학생들이 아테네 시가지에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킨 역사적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작가나 시인들은 꾸준히 일상 생활에 쓰이는 구어체로 작품을 써 나갔다. 지배 계급과 일반 시민들 사이의 이러한 언어적 대립은 막대한 국가의 정력을 소모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1917년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로 수상이 된 그리스의 민족적 영웅 ‘페니젤로스’가 초등 교육의 교육 언어로 민중어를 결정한 뒤에도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중들의 말로 초등 교육을 한다는 이 정책은 1921년 다시 보수—우익 정권이 집권하자 백지화되었다. 그러나 1923년 ‘케말 파샤’가 이끄는 터키 공화국과의 전쟁에서 참패하여 그 정권이 쓰러지고 또 다시 베니젤로스가 집권하게 되자 민중어는 초등 교육의 교육어로서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후 1935~6년 사이의 짧은 우익 정권 시대를 제외하고 이 정책은 1967년까지 꾸준히 계속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 시험 과목으로 되어 있는 고전 그리스어와 ‘문어체’를 공부해야만 했으므로 일반 대중과 지식 계급 사이의 언어 대립은 거의 영구화되는 것 같았다. 교육을 받은 그리스인들은 집에서는 구어체인 민중어로, 학교나 관공서나 직장에서는 교육어인 문어체로 말하는 이중적 언어 생활을 강요받고 있었다. 이에 대항하여 카잔자키스와 같은 대문호를 비롯한 작가들은 민중의 언어로 작품을 쓸 것을 고집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점점 구어체와 문어체의 일치를 주장하는 세력이 커져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폐진전되어 가고 있을 때인 1967년 그리스는 가장 혹독한 정치적 시련인 군사 독재를 받게 된다. 이 군사 정권은 국민 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민중어를 축출하고 교육, 행정, 학문어로서 오직 문어체만을 강요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문어체로 ‘대화’할 것을 권장했다. 모든 교과서는 좀더 엄밀한 문어체로 다시 쓰여지게 되었다. 어쩌다가 무의식중에 구어체가 튀어나가면 주위의 눈총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혹독한 획일주의의 시련이 의외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즉 1974년 7년간의 군사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성공적인 단계로 들어서게 되자 이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나 대학에서나 심지어 보수적 정치 세력 사이에서까지 문어체를 공용어로 채택하자는 주장은 군사 독재를 연상하게 되어 아예 차질을 감추게 되었다. 드디어 1975년 새로운 민주 정권은 그리스의 공용어로 민중들의 말인 민중어를 채택하며 모든 교과서가 민중어로 준비되는 1976년부터는 모든 교육도 이 언어로만 이루어질 것임을 공포하였다. 실로 2000여 년간 끌어오던 그리스의 언어 문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

유 재 원 (한양대 교수, 언어학)